제 977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10년 10 월 3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교회의 연합과 영적 성숙
(에베소서 4:1-16)

기독교인의 연합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교회의 연합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은 교회 연합의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형상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연합은 각각의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7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영적 은사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하며,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은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연합은 성도를 성숙한 신자로 성장시킵니다.

2. 영적 성숙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케 하시어 몸 되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영적 성숙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또는 성장케 한다'는 말을 네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임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은 먼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4-5절).

성도가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계속 성장해야 하고,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교회에서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요,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church's unity and spiritual maturity
(Ephesians 4:1-6)

The Christians' unity is based upon love.

1. The church's unity

The five conditions of the church's unity are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and love. However, generally speaking, these five conditions are summarized by love. In the midst of this diversity, we can find the means of the church's unity i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s a result of the diversity of grace, the Christians' unity will only grow deeper. In verse 7, these diverse graces are listed, but we learn that the One who distributes grace is Jesus Christ, in order that the characteristics might be diverse.

The purpose of receiving grace is to serve others,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Therefore, each grace must somehow benefit the church. If anyone disrupts the unity of the church, that grace must be taken away. The Christians' unity moves towards making the saints grow into mature believers.

2. Spiritual maturity

In verse 13, the Apostle Paul emphasizes the fact that God helps His people grow in spiritual maturity as He is building up His church as His body. As he is explaining spiritual maturity, he repeats the following idea four times,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or "It grows and builds itself up." This reveals what the church's true purpose is.

One practical way that the saints can accomplish this goal, first of all, is by remaining united. A mature person is one who works hard to keep the church united. The reason why the church must stay together is that there is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and one baptism, because God is one (vv. 4-5).

If the saints want to reach spiritual maturity, they must continue to grow, always living in the truth, always full of love. This is because the truth is always expressed in love.

So, the church is not able to grow without love. Paul teaches us that love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the church must reflect as it imitates Christ, as well as in each saint's life.

Loving our neighbors means that we must work to propagate the faith through evangelism. Our expression of love is the way that we reflect Christ, and express our maturity as saints and aspects of the maturity of the church.

Conclusion

Reaching maturity is not something that we accomplish overnight. Every work follows a process. Therefore, we do not need to work in haste or without thought, but believe in God's promise and His power, as we wait to attain the goal. Those who know how to wait have the appearance of maturity.

As we become spiritually mature,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succeed in making God's church His beautiful bod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사 명 자 대 회 일주일 앞으로 임박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2010 사명자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이 대회는 교회설립 50일 전 기도로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매년 교회설립기념주일 전 50일간 진행해 왔다. 2010 사명자 대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제로 전교인이 1명 이상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정, 50일 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열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성경암송대회 등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행사가 50일간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사명자 대회는 이종윤 목사가 11월1일(월)~11월27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한 24일간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한다. 말씀과 사랑,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2010 사명자 대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목사 서명철 목사
- 본부장 신용식 장로
- 차장 배재송 집사
- 진행분과 윤명구 집사 – 전도위원회
- 홍보분과 허 숙 권사 – 순례자
- 전도분과 은기장 집사 – 70인 전도대
- 기도분과 김장섭 집사 – 교구위원회
- 교육분과 이계홍 집사 – 교육위원회
- 안내분과 이남성 집사 – 사명자대회 실행위원 및 피택집사
- 재정분과 양춘경 집사 – 전도위원회
- 봉사분과 김진환 집사 – 스데반회, 피택권사

일 정	인도자	주력교구
11월 1일(월)	박노철	1, 2교구
11월 2일(화)	한상은	3,4교구
11월 3일(수)	서명철	5,6,7,8교구
11월 4일(목)	정수길	9,10,11,12교구
11월 5일(금)	장석남	13,14교구
11월 6일(토)	노헌상	15,16교구
11월 8일(월)	황 광	1,2교구
11월 9일(화)	박종민	3,4교구
11월10일(수)	문정훈	5,6,7,8교구
11월11일(목)	유문건	9,10,11,12교구
11월12일(금)	박광일	13,14교구
11월13일(토)	박노철	15,16교구
11월15일(월)	한상은	1,2교구
11월16일(화)	서명철	3,4교구
11월17일(수)	정수길	5,6,7,8교구

일 정	인도자	주력교구
11월18일(목)	장석남	9,10,11,12교구
11월19일(금)	노헌상	13,14교구
11월20일(토)	황 광	15,16교구
11월22일(월)	박종민	1,2교구
11월23일(화)	문정훈	3,4교구
11월24일(수)	유문건	5,6,7,8교구
11월25일(목)	박광일	9,10,11,12교구
11월26일(금)	박노철	13,14교구
11월27일(토)	한상은	15,16교구

"하나님께만 영광!"

2010 가을 시즌 화요 정오 오르간 연주회

10월12일 – 11월 16일 매주 화요일 정오 / 서울교회 본당(3층)

제13회 화요정오음악회가 시작된다.

2010년 가을 시즌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되는 화요정오음악회는 10월12일 정오부터 11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본당에서 저명한 오르가니스트들의 연주로 열린다. 관람석은 본당 3층에 준비된다.

10월 12일(화)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찬조출연 : 타악기 윤주일)	서울신대 성공회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0월 19일(화)	이한나 오르간 독주회	성결대학교 교수, 하나의 교회 지휘자
10월 26일(화)	손경순 오르간 독주회	고신대 교수, 서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2일(화)	김주현 오르간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11월 9일(화)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	서울장신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16일(화)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	연세대 한예종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소요리 문답 1부 수련회

10월 9일(토) 오전8시30분 출발

2010년 10월 9일(토) 소요리 문답부 수련회가 아가페타운에서 개최된다. 오전8시30분 교회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까지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오후 5시 교회 도착 예정이다.

깊어가는 가을 소요리 문답 1부 성도님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를 받으며 1인당 1만원(어린이, 청소년 무료)이고,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행운권 추첨이 있다.

3대 안식장로, 부교역자, 직원 시무 연임 투표 통과

우리교회 당회는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가진 3대 장로(,김대호,윤봉준)와 부교역자 전원, 그리고 직원 전원의 신임투표를 지난 9월26일 실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우리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제도는 2000년도 월간 조선 연말 호에서 선정한 20세기 한국교회 1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교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 시무하게 된다.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

10월9일(토) 오후2시 3사단 십자군교회,우리교회 주관으로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이 열린다. 10월9일(토) 오후2시 3사단 신병교육대 십자군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진중세례식에는 100여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와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이갑진 장로),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이 참여하여 세례식을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교회에서 9시30분 출발한다.

말라위 단기선교 CTS 방송 시간 변경

10월 16일 방영 예정이었던 CTS기독교방송 '열방을 향하여'(서울교회 말라위 단기선교 사역)가 오는 10월 9일로 앞당겨졌다.

- 본방 : 10월 9일(토) 오전 10시 50분
- 재방 : 10월 11일(월) 오전 4시,
  10월 12일(화) 오후 7시 50분

갈렙찬양대 대원모집

교인들의 장례 발생 시 상주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고인의 천국환송을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갈렙찬양대(부장:하영수 장로)에서 신입대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찬양의 은사가 있고 장례 발생 시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가 가능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9월26일 찬양예배시간에 가진 우승기 전달식

목사 이종윤 · 박사 이종윤 – 목회자의 길 11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오른 이종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사진

일본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운항하던 PAN AM기가 한국유학생 운송을 위해 김포공항에 특별 출항을 해서 한국유학생 100여명이 함께 떠나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 공항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환송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기저기서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길은 자유롭지 못할 뿐아니라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처럼 기쁨의 눈물보다는 이별의 슬픔이 더 컸다.

이종윤은 충현교회 10년사 집필을 하면서 유학수속을 밟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접한다.

국방부에서 신원조회 과정 중 병역미필이라는 사유로 해외여행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받는다. 그는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김창인목사께서 수속 잘 되어 가느냐고 물으셔서 간단하게 잘 안풀립니다 했더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가보라고 하셨다. 이종윤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무청을 찾아갔다. 창구에 앉아 있는 이가 사유를 듣더니 손가락 셋을 펴면서 3장을 가져오면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제대증을 보여 주어도 대답없이 손가락만 펴보인다. 하는 수 없이 돌아오는 중에 복도에서 지나가던 어떤 분이 "혹시 3사단에서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종윤 목사님" 하자마자 "제가 이종윤입니다. 저를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헌데 누구신가요?" "나는 병무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종윤의 방문 목적을 들은 그가 이종윤에게 앞에 있는 다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라 하고 제대증과 국방부에서 발송된 해외여행 불가 통지문을 갖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종윤은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도 못한 채 평생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앉아서 얼마동안 기다렸다.

졸업식장에서 홍순복 사모와 함께

그 분은 3사단 18연대 3대대에서 근무할 때 훈련과 작업에 지쳐 쓰러져 기진맥진 했을 때 인격지도를 하는 강의시간에 피곤한 분은 눈을 감아도 좋으나 귀만 열고 있으라고 해서 그 때 꿀잠을 자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인격지도 교육시간이 제 군대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실은 목사님 건은 내가 담당 과장입니다. 제대 후 2번 재훈련이 있는데 1번밖에 받지 않으셨더군요." 그때야 이종윤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동대문구 창신동에 살다가 서대문구 갈현동으로 신혼살림 위해 어머니의 남은 재산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문이 나오질 않아서 갈현동 동회에 가서 문의했더니 전 주소로 가보라 하여 창신동 동회를 찾아갔으나 "별사람 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통지문 받고도 뺑소니치는데 통지문 찾으러 다니는 사람 처음 보았다"면서 핀잔만 받았던 일이 상기 되었다. 과장님은 이종윤에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여기 도장 찍어왔습니다. 이것 갖고 유학수속 밟으시고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시어 우리 국민에게 인격지도 교육 많이 시켜주십시오" 했다.

성공하고 돌아오시어 우리 국민에게 인격지도 교육 많이 시켜주십시오

가난한 나라의 백성된 서러움을 느끼며 그래도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하자고 이를 악물었다

이종윤은 갈현동 집에서 1968년 5월16일 첫아이 미리를 낳고 그해 8월19일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청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 유학의 길을 떠난다. 신학교의 B.D.(지금의 M.Div.)과정은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야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이다. 미국학생들도 3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한국의 어느 학생은 7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간신히 했다. 과목당 읽어야 할 분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을 교수마다 요구하고 term paper를 몇 개씩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퀴즈시험이 매일같이 있으니 밥먹을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서 사용해야 했다. 이종윤은 3년만에 졸업을 했다. 물론 간신히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공부를 계속하면 수명이 몇 년 단축될 것 같이 여겨진다.

어느 주일에 이종윤은 미국교회에서 설교(간증)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토요일 밤 자정까지 공부를 하고 성주주일 신앙이 투철한 이종윤은 밤12시 땡소리부터는 책을 덮고 성경을 펴서 설교를 준비했다. 결국 주일아침 일어나서 세면장에서 졸도 한다.

앰브란스에 실려 응급실로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그 일이 학교에 알려지자 이군이 음식이 맞지 않아 영양실조로 졸도를 했으니 그의 아내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교장의 방 게시판에 붙기도 했다. 영양실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식을 안먹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어서였다. 당시 월70불의 장학금을 받는데 그것도 지출내역을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비싼 쇠고기보다는 값이 싼 닭고기를 먹으라는 조언을 받았을 때엔 가난한 나라의 백성된 서러움을 느끼며 그래도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하자고 이를 악물었다.

홍순복에게 Chestnut College의 1-20form을 보내주고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수속을 요구했다. 그녀의 조부께서 1900년대 도미하시어 유학생의 고통을 체험하신터라 유학생 아내로 자기 손녀를 미국에 보낼 수 없다하여 이종윤은 처음부터 엄두를 못내었으나 이미 학교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또 유학생활도 1년 반을 지내고 보니 조금 자신감도 생겨서 가족비자보다는 학생으로 미국에 올 것을 요청했다. 홍순복은 문교부 유학생 시험 원서 마감날에 헐레벌떡 다니면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영어, 역사, 상식 세 과목에 준비없이 치룬 시험이라 기대를 안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합격하고 그때 미시칸 테스트 시험까지 통과되어 학생비자로 갓난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남편을 돕겠다고 미국으로 온다.

이종윤은 유학온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 귀도 눈도 열린 것을 느꼈다. 이젠 무언가 할 만하다는 자신감도 붙었다. 한국에서 신학이라고 조금 한 뺨 정도의 맛이라도 보고 온 것이 그의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종윤은 아내와 함께 작전을 짰다. 당시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가진 학생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경우 Work permission 노동허가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는 노동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고 홍순복을 학교에 보냈다.

(다음 호 계속)

제 1, 2 스데반회 특강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스데반회 2010년 막바지를 맞으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기 위해 스테반회 제1, 2회가 연합하여 월례회를 가지며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을 경청했다. 지난 10월 1일(금) 있었던 이번 스데반회는 피택 집사까지 163명이 모인 가운데 사뭇 진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종윤 목사님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고전 15:22, 45-49) 제하의 말씀을 주시며 신학이 없는 성경은 뼈 없는 살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며 설교는 반드시 정립된 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조직하고 체계화 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며 본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창조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그 인간의 죄와 타락,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말씀을 마치신 후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을 피력하며 이후에 서울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목사님은 40대에 할렐루야교회를 개척하시고, 이후 충현교회 담임을 맡으시며 말씀 목회와 기도 목회로 부흥했던 일을 상기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목회 철학은 God's Ministry(하나님의 목회)라고 했다.

그리고 이후의 서울교회는 그간 지향해왔던 3E(Evangelism, Holy Expenditure, Education)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 이라는 교육 목표 그리고 ABC(Ardent Player 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 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 일관성있는 프로그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이제 서울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목사님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스데반회에 서울교회의 앞날을 당부하시며 당회를 존경하고 성도를 정성으로 섬기며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서울교회가 받은 비전을 잘 이루어나가라고 했다.

다음은 이목사님의 특강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텍스트를 요약한 것이다.

Ⅰ. 아담 -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Adam-Christ figure?)

①48절에서 아담은 흙에 속한 자를 대표한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이를 말한다. 49절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 한다.(롬 8:29, 빌 3:20)

②아담-그리스도의 대조는 특유의 대표성과 공동체를 대신한다. "한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사람이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8,19) 예수님은 이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부르셨다.(눅 22:20) 사도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살려주는(Life-Giving) 영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히 7:22),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다.(히 8:6) 즉 새 언약의 중보자(히 9:15, 12:24)시다.

③"첫 사람 아담은 생령(living soul)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Life-giving Spirit)이 되었나니"(고전 15:45) 여기서 아담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아담이 아니라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 **신학이 없는 성경은**
> **뼈 없는 살 같아서**
>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
> **설교는 반드시**
> **정립된 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조물 아담이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 곧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이란 적어도 다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뜻이다. ④고전 15:45에서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에서 접속사의 기능은 44절에 말씀된 것, 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44b)와 연결된다.? 43절 이하에서 바울은 부활 전과 부활의 몸을 양극으로 묘사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전의 몸이 육의 몸이라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즉 성령으로 변화된 생기 띤 몸이다. ⑤45절에서 '첫 사람 아담'이란 그 이전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45절) ?또는 '둘째 사람'(47절)이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엔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언약의 역사에 다른 분은 없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인간을 대표한 언약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사람이다. 그리스도 이후에도 없고 그리스도가 언약의 마지막 사람이다.아담과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신다.(48-49절)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부패와 죽음을 가져온 첫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부패하지 않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Ⅱ. 살려주는 영 (The life- giving Sprit)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다.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는데 언제 되었나?

①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45절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단순하게 영이 되지 않았다. 살려주는 영(Life-giving or Life producing Spirit)이 되었다. 이 영은 실재할 뿐 아니라 행동을 한다. 따라서 고전 15:45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②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반대로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한 47절은 마지막 아담을 둘째 사람이라 부르면서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 한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늘에 속한 자(48절)라 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은 특별히 승천하심을 포함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③살려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이다. 그가 부활할 때 신자들의 죽을 몸이 부활할 것이다.(22절) 신자의 부활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은 미래사항일 뿐 아니라 현재 일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살려주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already but not yet 구조이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일하신다.

④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의 머리이시고(22절) 그의 재림 시에 우주적이고 종말론적 주 되심이 나타날 것이다.

⑤고전 15:45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특별한 의미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깊은 의미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령의 능력을 선언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전에 없었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롬 1:4)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고후 13:4)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으로 전에 갖지 않으셨던 영광스런 인간이 되셨다.

⑥고전 15:45은 바울의 기독론과 성령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이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들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성령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Ⅲ. 살려주는 영과 오늘의 교회(The life-giving Spirit and the church today)

①성령과 종말은 바울에게는 분리될 수 없다.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면서 필연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②사랑은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다. 이 열매 속에서 성령의 종말론적 터치(touch)를 경험한다.

③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성령의 종말론적 삶 속에 있다. 이 세상은 승리주의 또는 번영의 신학을 좋아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여름의 초록이 조금씩 자리를 비우면 내찬바람 한 끝에 계절이 익어가는 가을!

아침저녁 오가는 바람이 살 속으로 스미며 작은 몸짓으로 이 가을을 드린다고, 속삭입니다.

인생의 한나절을 지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 여인들!

해가 지기 전에 하고픈 말 하고픈 일이 너무 많다고 서두르지는 않으시는지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1%의 기적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한나 전도회 교육부에서는 검증된 기독교서적 13권을 선정하여 부서마다 돌려 읽고 한 부서에서 한 명씩 독후감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일상이 바쁘다고 신앙에 유익 된 양서가 있어도 읽지 않는 우리의 안일한 현실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자 책읽기 행사를 전개 하였습니다.

여름 끝자락의 더위와 끈적거리는 높은 습도에 책읽기란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서마다 독서의 열기는 더위도 잊은 채 폭우와 태풍 중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독후감 발표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부서마다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어 영적, 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간접적인 체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친교부의 독후감 발표 시간에("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내 자아로 가득 찬 마음엔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독후감을 지나 눈물어린 호소에 모든 전도회원들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뜨거운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다 깊고 높은 영적 수준에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서마다 각기 다른 책으로 참여한 독후감 발표회는 마치 가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색깔들이 총동원 되어 빛깔고운 숲속을 이룬 것 같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1%의 기적을 선물 받는 아름다운 시간 이었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요즈음도 읽어가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의 1%와 성경말씀 99%가 합하여져서 100%의 기적을 만드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칼빈은 1509년 7월10일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 1564년 5월27일 55세 나이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을 마쳤다. 역사상 개혁교회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칼빈은 기독교강요와 성경주석 및 신학논문들을 출판한 중 특히 기독교강요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책으로 그의 나이 26세때 첫판의 초안을 완성하고 그 이듬해에 출판된 초판(1536년)부터 20여년동안 5판 개정판(1559년)까지 나왔다.

초판은 최종판의 1/5분량이나 평신도를 위해 쓰여졌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선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초판과 최종판의 중대한 차이를 볼 수 없다. 그가 처음부터 성경에 철저하게 충실했고 성경진리를 그대로 믿고 자기 발명이나 자기 사상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권 80장으로 된 기독교강요를 읽을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충실한 해석과 조직화를 발견하게 된다.

제1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이며 자연, 성경,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과 우상과 하나님과의 구별, 삼위일체 하나님,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2권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이며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다. 인간타락과 자유의지의 상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내용이다.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수단 곧 신앙 중생 회심, 그리스도인의 생활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4권은 교회를 논한다. 기독교강요는 성경 개요서나 입문서 또는 개혁주의 해설서도 아니다. 성경을 공부한 뒤에 읽을게 아니라 그 전에 읽어야 한다. 지구상 많은 책 중에 10번이상 읽혀질 책 10권을 꼽으라면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강요를 선택할 것이다. 성경 다음으로 1권만 읽어야 한다면 기독교강요를 추천한다. 그러나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최근 불어판 1,515페이지, 영역본 1,521페이지, 한글역 1,916페이지) –이절판으로 된 성경의 분량과 맞먹는 것이므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

기독교강요를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공부는 물론 칼빈에게 큰 영향을 끼친 두 교부 신학자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의 신학체계를 이해하게 된다. 성경과 같은 무오한 책은 아니나 기독교강요는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인 걸작이다. 개혁교회 신학의 총체(summa)라 할 것이다. 칼빈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인기는 그칠줄 몰랐다. 각나라말로 계속 번역되어 복음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성경 통독사경회를 마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통독사경회

류장렬 집사 (1교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이종윤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인 2010성경통독사경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막이 올라갔다. 다른 때와는 달리 추석 연휴에 자칫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성도들에게 생명샘을 부어 넣는 발상의 전환기회로 선택하였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 날 4시간, 둘째 날 8시간 총 12시간에 걸쳐 모세5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21장까지 총 232장 6110절의 대장정이 '아멘' 속에 진행되었다. 평소에 묵독으로만 읽어 말씀의 내용을 파악치 못했었는데 통독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싶은 말씀, 경고의 말씀 등을 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신 30:20),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등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이해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사실 모세5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24장까지는 경이로운 가운데 진지하게 읽을 수 있으나 그 후부터 신명기까지는 건성으로 읽고 말았는데 이번의 사경회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의 구절을 익힐 수 있었고 또 이후부터 나머지의 구약과 신약성경을 독파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전임교역자들의 1분간 약 9절을 소화시키는 빠르기로 낭독함에 따라 참석한 어린 유년부 학생들부터 연로하신 권사님, 은퇴 장로님 등 120여명 성도들의 눈은 성경자구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빛을 발하였다. 마지막 사사기 21장은 위임목사님께서 손수 진두지휘하시는 가운데 사경회를 통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고 귀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년1부

서울 교회 장년 1부 주일 오후반 모임을 소개합니다!!

이에리쟈 집사 (7교구)

서울교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7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학교 안에서 저의 신앙의 토대를 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전 성도들이 모두 교회학교에 소속되어 말씀훈련을 받도록 하는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주일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공급받고, 또한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 훈련도 받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청년부를 거쳐 신혼가정부, 그리고 이제는 장년 1부 교회학교에 소속되어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주일 오후 3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903호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의 장년1부 주일 오후반 모임의 시작은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혼가정부를 졸업한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신혼 가정부와 같은 모임이 장년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었고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인 모임 장소와 체계를 갖춘 장년1부 모임을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주셔서 올해부터 장년 1부 담당 장로님과 부장 집사님을 보내주셨고, 담당 전도사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17일 한상은 목사님과 이선희 선교사님, 장년1부 여러 지체들과 함께 아가페 타운에서의 수련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장년 1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도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모임이 체계화되어지며, 장년 1부 주일 오후반 모임을 사모하는 지체들의 발길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 장년1부는 신혼 가정부 이후 참여하게 되는 서울교회에 소속된 30대 성도들의 교회 학교 모임입니다. 장년 1부에 오시면 뜨거운 찬양과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말씀공부, 그리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또한 2~3개월마다 장년 1부 기도집을 발간하여 각 가정의 상세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뜨겁게 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년1부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장년1부 형제, 자매들이 모두 집중적으로 말씀훈련과 기도,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은 7층 유아부실로 분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장년1부 지체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임에 참여하여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동안 자녀들을 돌봐 주실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30분 903호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서 울 교 회 장 년 1부 홈 페 이 지 club.cyworld.com/seoulprime1)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아멘 관현악단(지휘/임범창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임범창집사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게르친국립음악원에서 지휘를 전공하였고, 페테스부르그신학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였다.

24명으로 이루어진 아멘 관현악단의 오늘 연주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 네곡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미국 웨스트 민스터 신학대학교 피터 릴백 총장을 초청(10월1-11일)하여 장신,총신,고신 개혁신학 대학교와 연세대를 각각 방문, 설교(특강)를 그리고 장로교 신학회,군선교 신학회, 개혁 신학회 등지에서 인사, 특강을 한다. 7일(목) 군선교 신학회 신학 심포지움 기조강연을 하고, 8일(금) 장로교 역사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웨스트 민스터 한국 동문회를 소집한다.

■ 이사 : 이미경 집사 Paula &Young Seo745 S. Bernardo Avenue, #5BSunnyvale, CA94087USA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선교회(10월3일) 베드로선교회(10.10)

■ **금주의 식사 :** 임흥수 집사 하옥봉 집사 가정 (생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2010 성경암송대회

· 10월17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 · 10월22일(금) 본선 / · 범위 : 로마서 6-10장

2010년 성경암송대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개역개정판, NIV)이며 10월17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선발된 이들은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본선은 22일(금) 오후7시에 602호, 603호,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24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및 발표를 한다.

2009 성경 암송대회 수상자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4. 피택자들의 준비과정 순조롭게.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